“광주 인권도시 포럼 정례화 하자”

참석자들 “인권도시 비전 실현 공동 노력”
광주인권도시 선언문 채택…세계포럼 폐막

국내외 130여 명의 인권도시·인권기구·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인권도시 비전 실천 공동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인권도시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또한,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광주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다시 개최해 지속적으로 인권도시의 지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권고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세계인권도시포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폐회식을 갖고 세션별 요약발표와 함께 광주인권도시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인권도시 원칙(광주원칙)과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현장에서 인권도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의 노력을 심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의 사회포용,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위원회, 국제인권 및 지방정부사무국(SPIDH)과 협력해 도시 인권을 위한 세계헌장-의제를 아래로부터 인권의 보편적 실천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촉진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관련 교육 기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인권도시의 비전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과 같은 시민사회 조직들과 함께 주민 중심의 참여와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증진하는데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포럼은 이밖에 유엔의 인권기구 가운데 인권이사회와 그 산하 자문위원회(HRCAC)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인권도시를 우선적인 의제와 사업계획으로 다루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포럼 참석자들은 광주시가 국제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성찰의 장인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내년도에도 다시 개최해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학술회의’에서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내외 토론자 23명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광주인권도시 가이드라인은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교 때 반 5등, 사법연수원서 첫 1등”
“약자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짓” 훈계도

모교 광주일고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

녹슬지 않은 농구실력 김황식 국무총리가 17일 모교인 광주일고 농구장에서 열린 후배들과 경기에서 블로킹을 뚫고 슛을 날리고 있다. 이날 경기는 고교시절 학교대표 농구선수였던 김 총리의 제안으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교인 광주일고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학창시절의 좌절·성취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농구경기에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광주일고 재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저를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총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 광주일고 재학시절 3년 평균 성적이 반에서 5등 가량이었고 사업연수원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해봤다”고 털어놓았다.

김 총리는 농구를 너무 좋아한 탓에 재수생이 됐던 아픈 기억도 들려줬다. 고 3때 학교 대표 농구선수로 선발돼 공부를 게을리한 탓에 서울대 법대에 떨어져 1년 동안 재수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재수하면서 성실과 겸손을 배웠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깊어졌다”며 후배들에게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김 총리는 “육체적으로 강한 학생이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비겁한 짓이다. 예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약자를 강압하고 굴종시키는 학교폭력은 없었다”고 개탄했다.

김 총리는 “공부와 운동, 모든 일을 즐기는 마음으로 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생활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강을 마친 김 총리는 후배들과 10여분 동안 3대3 길거리 농구를 하면서 유연한 드리블과 정확도 높은 슛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김 총리는 앞서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소록도병원 개원 제96주년 기념식 및 제9회 전국 한센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 “정부는 한센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정의를 위한 변화’ 광주아시아포럼 개막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 등 300여명 참가 오늘까지

2012 광주아시아포럼이 ‘정의를 위한 변화’를 주제로 17일 막을 올렸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9년부터 열려온 광주아시아포럼은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를 토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2 광주아시아포럼은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2010년 광주아시아포럼을 통해 출범한 5개국 7개 단체 네트워크)’ 워크숍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계속된다.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시민의 눈으로 민주화 정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재활 치유 워크숍과 한국, 일본, 대만의 9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공동 협정식도 진행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영암 성틀봉토성 5세기 축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고대 옹관고분 세력과 관련”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영암 성틀봉토성이 그동안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이 유역의 5세기경 고대 옹관고분 축조세력과 관련 있는 성곽임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에 있는 이 토성의 축성 시기와 유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굴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이 성벽은 축조 당시의 지표면을 다듬어 기초 공사를 한 후 관축(版築) 기법으로 그 상부에 3~20㎝ 두께로 마사토와 점질토를 번갈아 다져 깔아 중심 토루(土壘·성벽)를 만든 후 중심 토루에 다시 황색 사질 점토로 외피 토루를 덮어 축조했다.

특히 중심 토루를 쌓아올릴 때 일종의 외곽 틀 역할을 했던 나무기둥을 박은 구(溝·기다란 구덩이) 시설을 확인했다.

또 성벽은 구간별 축조방법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가 급한 구간은 외곽 틀 시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나무기둥이 박히는 부분에 구를 만들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구간은 나무기둥만을 세워 중심 토루를 축조했다.

북성벽 중앙 부분은 성벽 상부에 화강암을 깔아 보호한 부분이 확인됐으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190m, 높이 1.7m 내외, 폭 10m 내외임이 조사됐다.

성의 축조 시기는 토루 내부에서 5세기 초·중반경으로 판단되는 옹관편이 출토되고, 성벽의 판축 수법과 규모가 백제성보다 고식(古式)이며 규모가 작은 점, 이 토성 주변에 영암 내동리 쌍무덤(전라남도기념물 제83호)과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군(전라남도기념물 제84호)을 비롯해 다수의 5세기경 옹관 고분군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5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시굴조사 결과 영암 성틀봉토성은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고대 옹관고분 축조세력과 관련이 깊은 토성”이라며 “이 지역의 고대사회 세력 중 하나로 추정되는 영암 시종면 일대 세력의 거점성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급휴직 근로자에 6개월간 생계비 지원 추진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있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초께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신안군·나상필 무안군 해양수산과장
습지 보전 공로 대통령 표창

신안군이 습지 보전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신안에서 기념식을 열고, 신안군과 나상필 무안군청 해양수산과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또 유영업 증도갯벌생태전시관 관장과 고병설 해양관리공단 해양생태팀장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세계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잊을 수 없는 감동, 습지생태여행’이란 주제로 지자체와 사회단체 등과 함께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습지 보전에 공헌이 많은 단체 및 일반인 등에게 정부 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20명)이 수여됐다.

또 습지 주간(14~27일) 동안 전국 주요 습지에서는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무안군과 신안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박 2일 갯벌 생태여행체험 참가자도 모집한다.

국토부는 습지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제5회 해양보호구역대회와 지역별 자율형관리체계 사례에 대한 경연대회를 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공고 제2012 - 04호

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제1항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2009.08.21)】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 정보통신·소방시설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사 업 명 :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사업주체 :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용 역 명 :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4)공사개요.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56,361.00㎡.
● 연 면 적 : 584,600.16㎡.
● 규 모 : 지하2층, 지상 15층~33층, 35개동, 3,726세대.
(5)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 까지.
(6)감리원 배치.
● 정보통신감리 : 해당 감리원 상주.
● 소방시설감리 : 해당 감리원 상주.
2. 입찰참여 자격.
(1)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등록한 자로 정보통신기술분야 자격을 보유한 업체.
(2)소방시설 : 소방시설공사업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감리업 등록한 업체.
(3)상기 1항 및 2항의 해당 면허를 동시 보유 업체[※컨소시엄 불가]
(4)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현장설명회 장소 및 일시.
(1)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47-14번지.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62)362-5510, Fax:062)352-5510]
(2)일 시 : 2012년 5월 23일(수요일)[오후 2시]
4.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서류.
(1)정보통신·소방시설 감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2)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3)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사용인감),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4)상기 1항~4항이 포함된 지명원은 지명원 제출 가능.
5. 선정방법.
(1)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며, 당 조합의“감리업무 수행능력평가 심사기준”으로 선정.
(2)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방식 및 평가 심사기준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세부일정 및 내용은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배포한다.
6. 기타사항.
(1)제출서류의 부정 및 자격에 미달 될 시 자동 탈락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서 제출시 우편접수는 불가한다.
※ 본 사업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예정으로 본 조합, 광주도시공사, 현대건설과 협약에 따라 광주도시공사가 사업관리자의 지위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감리 감독은 광주도시공사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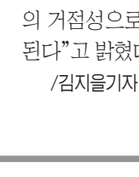
2012년 5월 18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 삼 도 [직인생략]

전통 침·뜸·부항
무료 공개강좌 & 수강생 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
(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중의학,경혈학, 진단학,방약학,해부학 등



〈침구기본학 교재〉

공개강좌일정 광주 27기) 5월 25일(금) 오후 2시
위치 :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